

# 42

## 분노 다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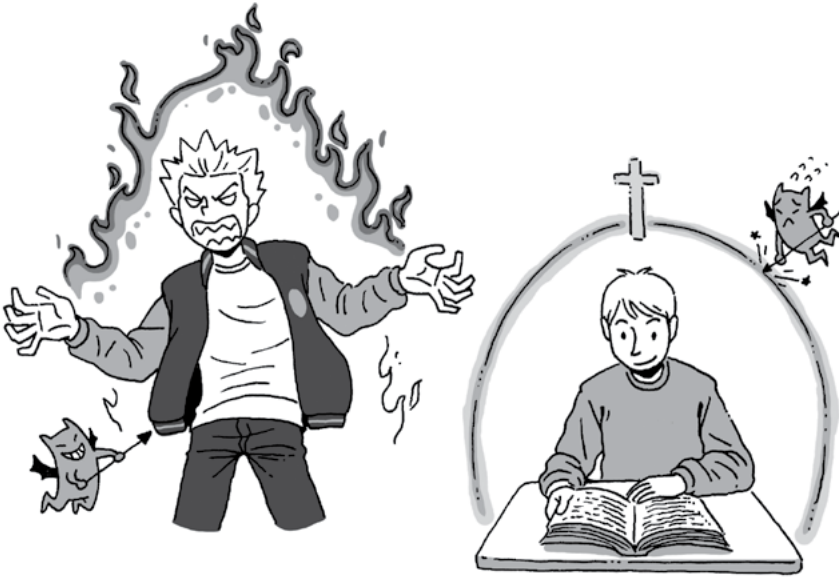
엡 4:26~27, 약 1:19~20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192장 (내가 죽어야)

오늘 배울



1. '화를 내는 것'은 부정적인 분노이고 '의분'은 긍정적인 분노임을 압니다.
2. 분노는 다스릴 수 있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감정임을 압니다.



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6~27)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는 속히 하고 는 더디 하며 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약 1:19~20)



## 을 이해하기

우리는 분노에 대해 올바르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가 나쁜 것이며,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분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이며,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사람에게 큰 힘을 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화, 짜증, 성냄이라고 표현하는 부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죄와 쉽게 연결되며, 마귀에게 틈을 주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노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을 탁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 할 수 있을까요?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16:32)

He who is slow to anger is better than the mighty, And he who rules his spirit than he who takes a city. (Pr 16:3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내가 분노한 경험을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시 37:8, 전 7:9).

②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잠 14:29, 19:11, 29:11, 약 1:20).

③ 성경의 인물 중에서 분노를 잘 다스린 사람을 찾아보고, 본받을 점을 정리해 봅시다.

④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봅시다(잠 15:1, 롬 12:19, 엡 4:26, 약 1:19).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37:8

---



---



---



---



---



---



---



---

의

잠 14:29

---



---



---



---



---



---



---



---

화

잠 19:11

---



---



---



---



---



---



---



---

↑

잠 29:11

---

---

---

---

---

---

---

---

↓

전 7:9

---

---

---

---

---

---

---

---

↓

롬 12:19

---

---

---

---

---

---

---

---

↓

약 1:20

---

---

---

---

---

---

---

---



##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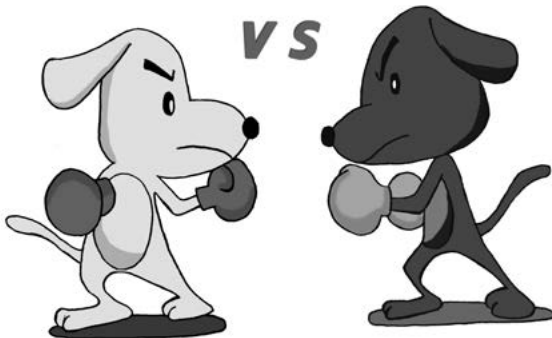
“형제들이여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으르릉대며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흰색의 선한 개인데 내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의 악한 개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짹짹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그야 뻔하지요. ‘우리가 쫓, 쫓, 물어!’하고 응원하는 개가 언제나 이기기 마련이지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한 예화 중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좇는다면 분명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 질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참여(수업거부나 데모)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롬 13:1~2)

정치인은 그 위치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은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단 4:17)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어떤 권력이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 하든 직장에서 데모를 하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근무시간에는 일해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하더라도 깨끗하게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벧전 2:13~14)